

회  
고  
록

1971년 전남대 지하신문 『녹두』와  
1970년대 중후반  
광주의 앰네스티 운동

박석무 \_다산연구소 이사장

1. 글을 시작하며

71년 교련반대 시위가 전개될 때 전남대학교에는 『녹두(綠豆)』라는 제호의 지하신문이 뿌려졌다. 동학혁명의 투혼으로 대학을 병영화하려는 독재정권을 타도하자는 요지의 창간사가 학생들의 마음을 격동시켰다. 박석무는 71년에 군대 생활을 하다가 72년 여름에야 제대하고 가을학기에 복학한 이강(李綱)에게 자신이 관여하여 제작한 『녹두』를 주었는데, 『함성』이라는 지하신문의 내용 요지에는 이 『녹두』의 내용도 들어 있었다. 압수수색을 당한 이강의 집에서 『녹두』가 나왔고 누구에게서 얻었느냐는 질문에 박석무 이름이 나오자 그 순간 『함성』, 『고발』 사건의 수괴로 둔갑한 것이 박석무였다. 그때 한창 대학교수로 학교에 남으려고 지혜를 짜고 있을 때였는데 국가보안법의 사슬에 걸려 만사

가 휴(休)로 돌아가고 말았다. 모두가 운명인 걸 누구를 탓하랴. 그리고 이후 박정희대통령이 세상을 뜰 무렵, 이강·김남주·김정길은 세칭 '남민전'이라는 사건에 연루되어 투옥되고 말았다. 서울에서 재판을 받고 81년 1월쯤에 광주교도소로 이감되어 73년에 살았던 그 특별사에서 고생하고 있었다.

80년 5월의 광주는 피로 물든 세상이었다. 그 때 박석무는 7개월을 도피하다가 80년 12월에 검거되어 상무대 영창을 거쳐 81년 1월에 광주교도소의 특별사에서 세 동지들과 해후가 이루어졌다. 슬픈 역사는 그렇게 반복되기만 하는 것이던가? ("반(反)유신운동의 효시 전남대 함성지(喊聲誌) 사건." 『기억과 전망』 2003 가을호, 258-259쪽).

2003년 가을호의 『기억과 전망』에서 최초로 전남대학교 지하신문 『함성』·『고발』이 유신 반대운동의 효시라고 밝힌 글에서 또 최초로 『녹두』라는 제호로 1971년 교련반대 학생시위에 기름을 부었던 지하신문이 뿌려졌다는 사실이 활자화되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1971년이라면 3선개헌으로 억지로 재집권한 독재자 박정희가 영구집권을 계획하면서 언론탄압에도 가혹한 조치를 취하던 때여서 당시의 중앙지나 지방신문에서도 『녹두』에 대한 한 줄의 기사도 나타나지 않아, 당시의 전남대 학생들이나 제작과 살포에 관여한 학생들 이외에는 전혀 알고 있는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1년도 되지 않은 1972년 10월 유신이 선포되어 온 세상이 쥐 죽는 소리도 내지 못하던 때에 전남대에 『함성』이라는 지하신문이 살포되고, 그 다음 1973년 초

에 『고발』이라는 지하신문이 제작되면서 『녹두』의 정체는 수사나 재판을 통해 그 전체가 드러나게 되었다.

앞의 인용문은 『함성』과 『고발』의 전모를 최초로 밝히는 보고서였기 때문에 글의 말미에서 『녹두』를 거론하면서 기억을 되살린 내용이기에 글의 서두에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2003년 『기억과 전망』에 보고한 글을 썼던 때가 또 13년이 흘렀다. 이제 필자는 70대 중반의 노인으로 1971년에 있었던 『녹두』에 대한 기억은 거의 잊혀진 상태다. 2003년에라도 그렇게 기록해두었던 것이 오늘 이 글을 쓰면서 기억해낼 수 있는 실마리라도 찾을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그래서 기록은 참으로 중요하다.

## 2. 데모에서 데모로 이어지던 학창시절

필자는 1962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1년 뒤인 1963년에 전남 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했다. 1960년은 필자가 고교 2년생으로 4·19혁명에 직접 가담한 해이다. 4월 19일인 그날은 온종일 광주 시내를 누비며 동료학생들과 함께 “부정선거 다시 하라!” “독재자는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목이 터지게 외쳐댔었다. 해가 지던 무렵에는 경찰에 의해 연행되어 경찰서에 갇혔다가 다시 서석초등학교 강당으로 끌려갔는데 오래지 않아 모두 석방되어 밤늦게 집으로 돌아갔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학교는 모두 휴교 조치되고

말았다. 전날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뽀박질을 했던 탓인지, 온몸은 몸살로 움직일 수 없이 녹초 상태였다. 점심시간이 될 무렵, 소식을 접한 아버지께서 시골에서 올라오셨다. 할아버지께서 광주에 올라가 애들을 바로 데려오라고 하셔서 오셨다는 것이다. 오후에 아버지를 따라 형님과 함께 시골로 내려갔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면소재지 지서에서 왔다는 경찰에 의해 지서로 끌려갔더니, 그곳에서 데모 가담자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되었다. 그날이 뒤에 헤아려 보니 4월 26일, 지서 안에서 라디오로 정오 뉴스를 듣는데 “나 대통령 이승만은 하야한다!”라는 뉴스가 나오자 경찰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풀어주었다.

나의 학생 데모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 당시 전남대학교 법과대학은 독립된 대학 건물이 없고 문리과대학 인문학부 건물의 한편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때 문리대 사학과에는 4·19때 함께 시위를 했던 고교 1년 선배들이 많이 있었다. 1964년 이후 한일회담반대 시위를 주도하고 앞장섰던 이홍길(뒤에 전남대 인문대학장), 홍갑기(뒤에 고교 교장) 등 1년 위의 선배들과 특별히 고등학교 때부터 가까이 지냈는데, 대학 캠퍼스에서 다시 만나 매일 어울려 지내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이런 특별한 인연이 뒷날 전개되는 전남대학교 학생운동에는 특별한 요인을 제공해주기도 했다. 1964년 3월 24일 이른바 3·24학생시위는 한일회담반대 운동인데 3월 25일 조간신문에 서울의 대학생시위소식이 전해지자 그날 우리 전남대에서도 선후배들이 모여 첫 번째의 시위가 준비되고, 3월 26일 대대적인 학생시위가 최초로 발생하였다. 그러면서 ‘한일문제 연구회’라는 단체가 구성되고 이 단체

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시위가 이어지게 되었다.

독재자 박정희는 1961년 5·16쿠데타로 집권하자 본연의 군인신분으로 돌아가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1963년 11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면서 마침내 제3공화국이라는 군사정권이 들어서게 되었다. 그 무렵 굴욕적인 한일외교로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자 전국의 학생들이 꺾기하여 회담 반대를 외치게 된다. 1964년 5월이면 독재자 박정희가 정식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겨우 6개월인데 그해 5월 27일 전남대학교에서 이른바 「5·27대통령 하야 시위」라는 과격한 학생 시위가 일어났다. “신망 잃은 박 정권 하야를 권고한다”라는 대형 플래카드를 내걸고 경찰과 투석전을 벌이며 도청 앞까지 진출한 매우 큰 학생시위사건이었다. 그 ‘하야’시위는 전국에서 최초로 나왔던 구호였고, 그 뉴스는 서울에 전해져 학생시위는 더욱 거세지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물론 그 하야시위는 필자가 주동한 데모였다.

5·27 바로 이어서 6·3 학생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났고, 전남대학교에서도 최대의 학생들이 운집하여 대단한 운동의 역량을 보여주었다. 6·3 데모가 수습되는 과정에서 필자는 최초로 구속되어 광주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 오래지 않아 풀려났으나 학생시위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1965년 역시 3월 31일, 이른바 전남대 ‘3·31 데모’는 그해 전국에서 최초로 일어난 시위로 총학생회가 직접 주동한 시위여서 총학생회장은 구속되고 많은 학생들이 제적·정학 등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된다. 필자는 앞 해에 구속되었던 여파로 시위에 앞장서지는 않았지만 이른바 ‘배후조종’이라는 이유로 며칠간

경찰에 연행되어 수사를 받았다. 3·31 데모의 여파는 참으로 컸다. ROTC 학생들이 시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여러 명이 퇴교당하고 사병으로 바로 입대하고 수많은 학생들이 제적·정학 등으로 많은 피해를 보았다.

그해 1965년 봄에서 여름까지는 캠퍼스는 조용한 날이 없었고, 단식데모·성명서·결의문 발표와 연좌농성 등 온갖 방법으로 회담반대와 수교 무효를 강력히 주장했었다. 필자는 그런 모든 경우에 시위대의 한복판에 있었다. 조기 여름방학으로 학교가 다소 평온해졌지만 8월에 조기 등교하던 날 마침내 월남과병 반대의 새로운 이슈로 대학가는 들끓기 시작했다. 등교 첫날이 8월 23일, 이른바 '8·23 월남과병 반대 시위'가 수백 명의 학생들이 운집하여 교문 밖으로는 경찰의 제지로 나가지 못하고, 교내에서 "우리는 월남의 사지에서 양키들의 총알방패가 될 수 없다"라는 대형 플래카드를 내걸고 성명서·결의문을 낭독하면서 농성에 돌입했다. 이 사건은 반공법 위반이라는 엄포 아래 전홍준(당시 정치과 1년)·김동근(정치과 1년) 등 2명과 필자까지 3명이 혹독한 정보과의 수사를 받고 구속되고 만다. 학생운동에 반공법을 적용하는 사례는 그때 당시는 흔하지 않았다. 법원에서 영장발부가 거부되자 검찰은 한 차례 더 시도했으나 두 번째 영장신청도 기각되자 마침내 집시법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오래지 않아 유치장에서 풀려나왔는데 그 다음날에 입대하도록 군입대영장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1965년 9월 군에 입대한다.

논산훈련소와 제2차 교육을 받고 다행히 후방부대에 배치되었으나

얼마 되지 않아 방첩대로부터 시위전력자라는 신원이 판명되자 유례 없는 일로 사병을 후방에서 전방으로 배치하는 악행까지 저지르고 말았다. ‘육본 특명’이라는 전보명령으로 강원도 양구의 전방부대에서 3년을 고생하다가 제대하였다. 1968년 4월 제대 후 가을학기에 이르러서야 퇴학 처분된 학적 때문에 다시 입학금을 내고 재입학 절차를 받아 대학에 복학했다. 학교 공부를 하고 싶은 의욕이 없어 이런저런 책이나 실컷 읽으며 세월을 보냈다. 4학년이던 1969년은 또 학교가 조용하지 않았다. 이른바 ‘3선개헌 반대’라는 학생시위가 다시 재연되면서 학교는 온통 아수라장이 되었다. 후배들의 요구에 전혀 거부할 수는 없었지만 그때는 시위에는 적극 가담하지 않고 8년째 다니는 대학이나 마쳐야겠다고 생각하여 조심스럽게 지내고 있었다. 1970년 2월 마침내 대학을 마치고 이제는 학문이나 하자고 대학원에 입학했다. 마침 영어과 중등교원자격증을 얻는 고시에 응하여 준교사자격증을 얻었다. 그래서 중학교 임시 영어교사로 있으면서 1971년 1년은 석사학위 논문을 쓰느라 골몰하고 있을 때 대학가에는 전국적으로 교련반대 데모가 열풍을 일으키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마침내 『녹두』라는 지하신문이 전남대학교 교정에 뿌려지게 된다.

### 3. 지하신문 『녹두』의 탄생

『함성』·『고발』이라는 과격한 지하신문은 단 하나의 원본도 온전하게 전해지지 않아 공소장이나 판결문에 인용된 겨우 몇 줄의 내용을 알아볼 수밖에 없으나 다행히 『녹두』는 딱 하나의 원본이 전해지고 있어 잃어버린 기억 속에서도 전문을 알아낼 수 있으니 다행이다.

綠豆

1971년 10월 13일 창간호.

편집 및 발행: 전남대학교 녹두편집동인회

創刊辭 東學의 闢魂으로 民族·民主의 焔불을!!

「離散된 民族을 모으고 학대받는 民衆을 일으켜 새로운 民族史를 創造하려는 歷史的 進運은 創世記 직전의 용트림처럼 成熟해버린 革命前夜의 韓半島의 하늘 아래다. 목 메인 鄉愁처럼 우리는 오늘을 만들어왔고 오늘을 기다린 바 있다.

中世暗黑의 封建的 桎梏下에서는 執權層에 背馳될 때마다 反逆鄉이라 낙인받았던 湖南이요, 小數 特權의 反民族·反民主의 부패정권 아래서는 失鄉民처럼 떠돌림 받아 政治的 배려에서 벗어나 있는 내고장 湖南千里! 民衆의 괴로움을 자신의 아픔으로, 民族의 危機를 내 가정의 위협으로 여겨 나라가 위태로울 때 民族이 受難을 당할 때마다 맨주먹 죽창으로 일어서던 의롭던 모습은 湖南魂의 熱火같은 자랑이었다.

포악한 虐政에 일어서서 민권을 외치던 湖南의 義人들을 기억하자!  
 왜놈들의 侵略에 항거하여 도포입고 죽창들던 저 임진왜란의 金千鎰·  
 高敬命·金德齡장군의 피어린 義兵史를 머리에 떠올리자! 李朝農民史의  
 最后의 자랑이요 歷史의 進運이던 저 東學革命의 아버지, 이 나라 民  
 族主義의 偉大한 創始者, 綠豆 全琫準 先生의 불같은 鬪魂을 想起하자,  
 李朝五百年史에 東學革命의 偉大한 教訓과 웅장한 民族魂이 없어도  
 그것도 歷史라 하였을 건가! 우리는 그 할아버지의 子孫이요, 그 정신  
 을 잇던 三·一精神과 光州學生獨立운동, 4·19학생혁명의 혁혁한 역군  
 들의 直系후배들이다. 봉건적 착취집단의 末期의 발악에서 쓰라린 苛  
 政과 흑독한 착취의 사슬에서 흰수건 짝등 동이고 부지갱이 쇠스랑으  
 로 일어서던 그 위대한 英雄 綠豆장군의 열렬한 혁명정신을 우리는 알  
 아야하고 繼承해야하고 또 현재에 그 結實을 맺어야 한다.

보라! 小數特權集團의 不正腐敗에서 오는 末期의 現象을! 실미도 난  
 동, 廣州民衆봉기, KAL빌딩放火, 무장군인 학원난입, 原州·서울·大邱  
 의 教職者데모, 불같은 학생데모 등등 잇단 이 엄청난 社會的 혼란과  
 權力의 횡포가 東學革命이 일어나던 그 때와 무엇이 다른가. 專制와  
 壓制의 王朝政權에 抗拒할 때마다 反逆鄉이라던 명예로운 정의의 역사  
 적 蠟燭을 沒民族, 反民主, 依外勢의 착취집단에 분연히 켜기하던 東學  
 鬪魂의 蠟燭을 우리는 다시 特權·부패·反民主集團을 尙해 싸우려는 새  
 로운 蠟燭로 받아 쥐기 위해 「綠豆」의 새 아들로 이 땅에 자리하련다.

우리는 가냘프고 연약한 목소리이지만 歷史의 革命的 進運을 양어께  
 에 맨 채 五千萬 民族의 성원 아래 용기를 지녔음을 자랑한다. 그리하

여 우리는 民族主義의 완전한 先驅인 東學革命의 未完을 완수키 위한 모든 작업을 새로이 펼칠 것이다. 가난과 압제와 불안의 情報政治, 예 비군·학군훈련·貧農政策에 시달리는 農民·庶民·學生편에 서서 외칠 것이며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할 자리가 없어 일을 못하는 勞動者, 실업자들의 외로운 사연에 귀를 기울일 것이며 물가고에 시달리고 세금에 짓눌린 商工人의 아픔도 잊지 않을 것이다. 세계는 바야흐로 가지지 않은 사람, 못먹는 사람, 권력도 힘도 없는 연약한 庶民의 哀訴와 慟哭으로 가득차 있다. 우리는 湖南의 大學知性이다. 民族的 使命感에 불타는 열혈의 靑年이요 호남투혼의 連綿한 계승자이다. 反民主·反民族的 치부 탈피하고 現下의 特權·獨占·權力의 囂포에 농간 당하는 民衆과 소수 매관자본에 신음하는 수백만 노동자는 물론 政治와 社會에서 소외된 농민의 현실을 살살이 고발하고 폭로하여 學問과 研究를 위한 자료로 삼고 民族史의 進運에 발맞추도록 행동하는 知性人의 公器로 자부할 것이다.

피어린 先烈의 투혼은 우리를 保佑할 것이며 歷史의 진운은 우리를 영원한 民族主體勢力으로 키우는데 방관치 않을 것이다.

우리는 東學農民혁명과 民族主義의 正統的 혁명의 계승자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약한 서민·농민·상공인, 용기있는 진실한 知識人과 함께 호흡하여 民族史를 새로 구성할 새 역사의 용광로다.

우리는 진정한 민족·민주세력과는 언제나 햇불을 같이 옮기는 데 인색하지 않을 民族總和의 새로운 디딤돌이다.

『녹두』 창간사



『녹두』라는 지하신문의 창간사 전문이다. 정제되지 않은 구호 위주의 성명서나 선언문 같은 글이지만 지하신문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당시의 시대와 사회적 배경은 그런대로 열거된 글이다. 1971년 한 해 동안에 독재와 부패정권의 말기적 현상으로 드러나던 온갖 갈등과 사회적 모순은 피 끓는 젊은 대학생들이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던 때였다. 독재권력의 언론탄압으로 진실이 보도되지 못하고 백성들의 참다운 민의가 밝혀질 수 없던 시절에 새로운 언론의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각오도 피력되어 있지만 부패와 타락으로 찌든 독재정권을 동학혁명정신으로 타도하지는 내용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 무렵 잇따라 터진 실미도난동사건, 광주민중봉기, KAL빌딩 방

화, 무장군인 학원 난입사건, 원주·서울·대구 등지의 기독교계 교직자들의 데모나 대학생 시위가 열화같이 솟아오르던 때여서 혁명 전야의 사회적 현상이라 여기고, 모든 국민들이 주창으로 일어서던 동학혁명 정신으로 쫓겨갈 것을 독려한 포고문 같은 글이었다.

창간사 다음으로 이어지는 기사의 제목만 보아도 왜 그런 지하신문을 간행해야 하는가를 금방 짐작할 수 있다.

한반도에 동학의 횃불이 타오르다!

全南大學校 녹두편집동인회 발족

71년도 후반기에 접어들자 한반도는 바야흐로 혁명적 전환기를 방불케 되었다. 언론이 힘을 잃고 학원이 자유를 상실하자 대학지성은 입과 귀를 닫아야 했던 이 민족사의 서러움을 딛고 일어서려 전남대학교 6개 單大에서 良心의 대학생들이 집결하여 동학 關魂으로 民族·民主의 횃불을 다시 옮겨줘자는 요지의 창간사를 필두로 하여 동학혁명의 接主 全奉準장군의 別名인 『녹두』라는 제호로 창간호를 내게 되었다.

『녹두』는 진정한 한반도의 현상을 적나라하게 보도하고 대학지성의 자각을 깨우치는 民族의 公器로 自負하고 있다. 많은 大學人과 有志들의 성원이 기대된다.

라고 녹두 탄생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 다음에 이어지는 기사들은 당시 침묵하는 신문에 대항하듯, 전남대 학생들의 시위 소식을 정확하게 소개해주고 있다.

첫 햇불, 千餘 學生 街頭데모로!

지난 11일(필자 주: 1971.10.11.) 本校 1千餘 명의 학생들은 10시 20분부터 본부(필자 주: 대학본부) 앞 광장에 집합, 현 정권의 부정부패상을 신랄하게 비판한 선언문과 결의문을 채택하고 곧 이어 학생들은 교문을 나와 경찰 저지선을 뚫고 시청 앞까지 진출, 데모를 벌였다. 이날 선언문에서 학생들은 武斷政治로 민족·민주주의가 말살되었다고 이의 쟁취투쟁에 앞장설 것을 선언하고 또한 결의문에서는 부정축재자, 매관 자본가들을 공개처벌하고 외국 석유자본과의 계약을 철회하고 미국·일본과의 굴욕적 외교관계를 청산함과 동시에 三不의 총본산인 中央情報部 해체를 촉구했다.

학생들은 「국방 위한 군인이냐, 학생잡는 군인이냐!」「3불 총본산 정보부를 즉각 해체하라!」「가소롭다 서정쇄신 원흉이 누구더냐!」 등의 구호를 웨치면서(필자 주: 외치면서) 100여명의 경찰과 대치 투석전을 벌였다.

라고 기술하여 학생 시위의 상보를 알려주고 있다.

12일엔 都廳앞 광장까지

또한 12일에는 2백여명의 여학생을 포함한 1천5백여명의 본교 학생이 또 다시 본부 앞에 집결, 동쪽 문으로 진출하여 대기 중이던 경찰 1백여명과 두 시간동안 투석전을 벌이고 12시 반경, 일단 해산했으나 그중 3백여명이 다시 도청 앞 광장에 모여 데모를 벌였으며 구호를 웨

치며(필자 주: 외치며)충장로를 시위하였다. 이날 오전 중 데모에서 학생들은 경찰의 최루탄에 의예과 2년 김덕호군 등 10여명의 학생이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도 학생들은 「부정부패를 타도하자」라는 등의 정부를 공격하는 구호를 웨쳤다(필자 주: 외쳤다).

라는 학생들의 투쟁 현장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다. 마지막 기사는

#### 學術講演會 開催

7·8일 양일간 본교학생회 주최로

京鄕의 名大學 連日데모- 전남대학을 비롯한 서울대, 고대, 연대, 동국대, 경북대 등 전국 각 대학은 부정부패 규탄 성토, 데모, 농성을 연일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소식을 전했다.

그리고는 신문의 여백에 축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전국의 유명 대학 학생단체들과의 연대를 과시하는 내용이었다.

#### 祝 綠豆 創刊 祝

除暴救民! ..... (서울대학교 自由의 鐘 同人會)

斥洋斥倭! ..... (고려대학교 한맥회)

萬民平等! ..... (慶北大 正進會)

人乃天! ..... (연세대학교 한국문제연구회)

綠豆萬歲! ..... (梨花大 한얼회)

지하신문 『녹두』는 1971년 10월 13일자로 요즘으로 보면 A4용지 두 장의 크기를 앞뒤 양면으로 만들었으니 A4용지 4장의 크기였다. 출판으로 미농지에 써서 프린트한 원시적인 것으로 신문이라기보다는 ‘짜라시’ 같은 신문이다. 언론이 위축되어 있던 때 들불처럼 번지는 전국의 학생데모를 대부분 보도하지 않고 있는 안타까움에서 대학가의 반정부 데모를 알리려는 목적이자, 대학생들을 깨우치고 지식인들을 각성시켜 국민 모두가 독재정권 타도에 앞장설 것을 선동하려는 뜻으로 만들었던 지하언론인 셈이다. 우리가 대학시절에 러시아혁명 당시 『이스크라(불꽃)』라는 혁명 선동지가 혁명에 큰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터여서 어쩌면 그런 흥내라도 내보려던 뜻이 조금은 있었다.

그러나 『녹두』는 단 한 차례 간행으로 끝나 명이 아주 짧았던 신문이다. 13일 이후의 소식은 끊겼지만 실제로 이 신문을 읽은 학생들은 상당한 영향을 받아 전남대에서는 14·15·16·17일 경까지 대대적인 학생데모가 계속되었던 기억이 있다. 그 무렵 다른 대학에서는 소강상태에 들어갔으나 광주는 유독 격렬한 시위가 이어지고 있었다. 『함성』·『고발』이라는 전남대 유인물 사건에서 기술했던 대로 1972년 유신 선포 뒤 『녹두』의 정신은 그대로 두 지하신문에 옮겨져 그 파란 많은 『함성』지 사건이라는 대형 사건이 발생했던 점으로 보아도 『녹두』의 영향은 쉽게 말하기 어렵다. 1970년대 후반 광주 시

내에는 ‘녹두서점’이라는 사회과학서점이 문을 열어 광주민주화운동에 이르는 동안까지에 큰 영향을 주기도 했고,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전남대학교에는 투쟁적인 동아리 ‘녹두’라는 단체가 탄생하여 학생운동의 주도권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 4. 전남대학교 60년사(1952~2012)의 기록으로 보는 『녹두』

2012년 8월 10일 간행한 『전남대학교 60년사』는 전남대학교 60년사 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하여 전남대학교가 간행한 학교의 역사다. 매우 소루하고 부정확한 내용이 많기는 하지만 우리의 기억을 보충해줄 몇 가지 기록은 참고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책을 통해서 『녹두』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겠다. 전체 1482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60년사에는 딱 한 차례 『녹두』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운동”이라는 항목의 글에서 ‘사회과학 서클과 지하신문의 등장’이라는 소제목에 “1970년 전남대 학생운동사에서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는 본격적인 사회과학 서클이나 지하신문의 등장이었다. 1972년 10월 이후 모든 상황이 사회과학 서클의 존립을 어렵게 했다”라고 말하여 지하신문의 등장을 말하고 정확한 시점을 말하지도 않고 “이 무렵 ‘녹두’라는 지하신문이 발행되었다. 전남대 지하신문 1호인 『녹두』는 송정민이 편집하고 백계철(문리대 영문과), 김완기(당시 행정 공무원)가 필경을 맡았으며 박석무(당시 대학원생)가 작명과 함께

제1호 사설을 썼다. 『녹두』는 제3호까지 발행되고 끝났다”(『전남대학교 60년사』 2012, 1005)라는 기사가 『녹두』에 대한 전체 기사이다.

『녹두』의 등장에 관한 서술은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지만 『녹두』로 인해 수많은 학생들이 제적을 당하고 무기정학을 당한 사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서 『녹두』가 탄생하던 무렵의 사회적 환경이나 학내 분위기 등은 비교적 온당하게 기록되어 있다.

전국 대학생대표들은 전국학생총연맹(전학련)을 결성하고, 군부독재 타도 데모를 일제히 벌이기로 약속했다. 비록 실행에 옮겨지지는 못했으나 10월 초 고려대생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는데 10월 5일 이를 지지하기 위해 수도경비사 군인들이 고려대학교에 난입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오히려 학생들을 자극하여 시위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전남대에서는 10월 11일 300여 명의 학생들이 본부 앞 광장에 모여 정부의 부정부패와 고려대 군인 난입사태를 규탄하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가두시위를 벌였다. ‘국방을 위한 군인이나 학생 잡는 군인이냐’는 구호를 외치며 서방삼거리 쪽으로 진출했다가 경찰과 충돌, 학교로 돌아와 해산했다. 다음날인 12일에는 1,300여명의 학생이 동문 쪽에서 100여 명의 경찰과 대치, 학생 1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 중 200여 명은 도청 앞까지 진출하여 부정부패 타도를 외쳤다. 13일에도 계속되어 10시경 500여 학생이 본부 앞에 모여 선언문을 낭독하고 서문 쪽으로 나가다가 경찰과 충돌했으며, 광주역까지 진출했다가 경찰에 포위되어 40여 명이 연행되었다. 14일에는 오전 10시경

광주공원에 500여 명이 모였는데 미리 출동한 200여 명의 기동경찰에 의해 일부 학생이 연행되었고, 다시 총장로 파출소 앞에서 집결하여 금남로로 시위 행진하다가 50여 명이 연행됐다. 오후 1시경 교정에 다시 모인 학생들은 전국 14개 대학 공동선언문을 낭독하고, 다시 동문으로 행진, 경찰과 대치하여 연행 학생의 석방을 요구했으나 거절되자, 200여 명의 학생이 자진 연행을 결의하여 경찰차에 올라탔다(『전남대학교 60년사』 2012, 1002).

라는 기록을 보면 그때 『녹두』의 기사와 대동소이함을 알 수 있다.

『전남대 60년사』는 당시의 끈질긴 학생데모의 주동자들이라는 이유로 많은 학생들에게 가혹한 처벌을 내린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같은 책 1003페이지에 의하면 제적 9명으로 김혜준(화공 2), 이태희(수의 1), 송정민(영문 4), 나병수(생물 3), 고재득(법 4), 김진(법 3, 법대회장), 이휴신(법 2, 법대부회장), 유철(경제 3), 홍유석(경영 3)을 열거하고, 무기정학 17명과 또 다른 무기정학 7명의 명단을 열거하였다. 그해 10월 15일 학원질서 확립을 위한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담화가 나오자 다른 대학은 소강상태로 들어갔으나 전남대 사정은 달랐다.

대통령 특별담화에 의해 500여 명의 경찰이 전남대에 진입, 학생회장단 10명과 학생 50여 명을 연행해 가고, 오후 4시 본교를 포함한 8개 대학에 휴교령이 내려졌으며, 서울에는 위수령이 내려졌다. 16일에는 데모 주동학생 9명을 제적하고 17명을 무기정학에 처했으며 교련

거부 59명을 병무청에 통보했다.

라는 기록도 전남대 시위가 얼마나 과격한 상태였나를 반증해주고 있다. 『녹두』의 영향은 운동의 질적 고양과 공고화로 달리면서 다른 대학과 다르게 끈질긴 투쟁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제 필자의 기억을 되살려 『전남대 60년사』의 기록을 검토해보자. 앞에서 나왔던 바와 같이 1971년 대학원 2학년생으로 석사학위 논문작성에 여유가 없던 필자는 당시 세상의 부패와 독재의 극악한 통치에 진절머리를 느끼며 동학혁명처럼 우리 국민 모두가 죽창이라도 들고 일어나 독재세력을 타도했으면 가슴이 후련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당시 살던 셋방의 주인집 아들이던 영문과 4년 송정민(뒤에 전남대 신방과 교수로 정년)과 함께 『녹두』지를 구상했었다. 사실 필자가 제호도 짓고 창간사도 썼지만 만약 문제가 되어 대학생이 아닌 대학원생의 소행으로 밝혀지면 참으로 사건은 확대될 수밖에 없었다. 송정민이 김세웅(당시 법대 1, 뒤에 은행원으로 은퇴)과 박만석(당시 경영대 1, 뒤에 경영대 교수) 등과 함께 편집하고 기사를 쓰게 했고, 필자의 아주 가까운 후배 김완기(당시 도청 공무원, 뒤에 청와대 인사수석)가 출판으로 굶어서 프린트할 수 있게 했다. 그때 법과대학 4학년이던 고재득도 필자의 후배로 열심히 학생시위를 주동하고 있던 때여서 「녹두 동인회」는 고재득이 이끌고, 창간사 등은 모두 송정민의 글인 것으로 약속을 했는데 뒤에 사건이 터지자 필자의 역할은 완전히 숨겨지고 고재득이 총책임자이고 글을 쓴 사람은 송정민으로 수

사가 마무리되어 송정민과 고재득은 결국 오랜 수사 끝에 형사처벌을 면하고 학사처벌로 제적을 당한 뒤 1년 후에야 복학하여 졸업할 수 있었다.

필경에는 김완기 이외에 박만석·김세웅 등이 함께 했으나 그들은 큰 피해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매우 다행하게 생각하였다(관여한 사람은 더 있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기억할 수 없어 더 이상 열거하지 못한다).

여기에서 감동적인 일이 하나 있다. 송정민·고재득은 실제로 큰 책임이 없었다. 일을 기획하고 발의하여 글을 쓴 사람은 필자였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했으나, 고재득·송정민은 아예 필자의 이름을 거명하지도 않고 자신들이 했던 일로 독담하여 제적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았으나 필자는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으니 그 당시 운동권의 선후배 의리가 그렇게 튼튼하고 두터웠던 사실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필자는 그때는 무사했으나 1973년 함성지 사건에 수괴로 둔갑하여 고생을 했음은 그때의 업보라고 여겨진다. 그래도 다행임은 송정민은 모교의 교수로 큰 장애 없이 학자 생활을 했고, 고재득은 4선의 서울시 성동구청장으로 고위공직자 생활을 무사히 보낼 수 있었으니 의리의 사나이들은 역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사건이었다.

1971년 학생운동에서 『녹두』의 영향을 수치로야 설명할 방법이 없으나 학생운동에서 ‘동학’과 ‘전봉준’이 투쟁 논리로 전개되면서 농민투쟁으로 역사를 바꾸겠다는 정신이 당시 독재타도의 하나의 방편으로 거론되었던 것은 학생운동사의 기술에 새로운 콘텐츠가 가미되

있음이 분명했다. 특히 『함성』지 사건 이후 시인으로 명성을 날렸던 김남주의 많은 시에서 ‘녹두’와 ‘동학’, ‘전봉준’, ‘죽창’ 등이 수없이 등장하는 점은 두고두고 더 검토해야 할 사안임을 알아두어야 한다.

## 5. 광주 의 앰네스티 운동

1972년 2월 전남대학교 대학원에서 “다산 정약용의 법사상”이라는 제목으로 법학석사 학위를 받고 졸업하면서 필자는 대학과의 인연이 끊겼기 때문에 학생운동에는 직접 가담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 1973년의 『함성』지 사건으로 투옥되어 출소한 이후에는 정보당국의 철저한 감시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대학생들과의 접촉도 쉽지 않았다. 필자는 그렇다고 유신통치 이른바 ‘긴조시대’(긴급조치로 탄압받던 시대)라는 악독한 정권의 횡포에 혼자서 눈을 감고 자신의 삶만 살아가는 불량한 생각은 없었다. 어떻게 해야 독재의 사슬에서 벗어나고, 자유와 인권이 박탈당한 비참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74년에 ‘민청학련’사건이 터지며 학생운동은 크게 위축되었지만 『함성』지 이후 반유신운동은 전국에 들불처럼 번져 가던 것도 사실이었다.

해직되었던 광주의 석산고등학교로 복직할 방법이 없자, 생계유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라북도의 고창군에 있는 면단위 고등학교

인 고창종합고등학교라는 곳으로 교사 발령을 받은 때가 1974년 3월의 어느 날이었다. 1974년 1년은 온전히 그곳 고등학교 교사로서의 생활을 하면서 주말엔 광주에 들러 세상 돌아가는 소식이나 접했었다. ‘민청학련’사건에도 상당히 관여되었지만 광주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던 것도 그나마 다행한 일이었다. 『함성』지로 함께 감옥생활을 했던 이강, 김정길 군 등은 민청 사건에 연루되어 또 구속되었고, 유일하게 김남주 군만 광주에 남아 가끔 소식이나 주고받았다. 이 무렵 서울의 함석헌 선생, 장준하 선생, 광주의 홍남순 변호사 등은 ‘민주회복국민회의’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박정희 유신독재정권과 싸움을 벌이기 시작하면서 극심한 탄압에 시달리기도 했다. 광주로 주말에 나오면 홍남순 변호사 맥을 들러 경향의 소식을 듣기도 하면서 민주 회복의 일에도 함께 하며 게으르지 않게 관여하였다.

1975년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깊은 해였다. 3월에 광주의 사립학교인 대동고등학교라는 곳에 교사로 자리를 옮겼고 그해 5월에는 노총각에서 결혼한 새신랑이 되기도 했다. 이 무렵 대체로 학생운동은 소강상태였으나 일반 시민운동으로의 민주회복국민회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1976년을 보내고 1977년에는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인터내셔널)가 단체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학생이 아닌 일반인 신분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던 때인데 국제사면위원회가 노벨평화상 수상으로 세상의 관심사로 떠오른 사건은 나에게도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양심수를 돕고, 인권운동과 사

형제도 폐지에 앞장서는 세계적인 인권기구인 앰네스티에 매력을 느끼면서 운동단체의 결성에 착수했다.

이에 서울에는 앰네스티 한국본부가 창설되어 활동하고 있었기에 우리는 광주지부를 결성하자는 생각이 이심전심으로 전해졌다. 한국 본부의 회원으로 활동하던 광주의 이기홍 변호사를 찾아뵙고 지부를 창립하자는 뜻을 전하자 즉석에서 크게 환영하여 곧바로 창립준비에 들어갔다. 발기인대회 준비를 위해 광주의 인권운동의 원로들이신 홍남순 변호사, 조아라 장로, 이성학 장로(제헌 국회의원), 은명기 목사 등의 동참을 허락받았고, 천주교의 김성용 신부, 정규완 신부, 조비오 신부 등도 흔쾌히 함께 하기로 하였다. 개신교 쪽에서도 강치원 목사, 고민영 목사, 문정식 목사, 유연창 목사, 방철호 목사, 윤재현 목사 등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기로 하였다.

타임테이블에 따라 그해 11월 21일 광주 YWCA 회의실에서 창립 발기인대회를 열었고,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마침내 창립총회를 개최한 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때에 광주의 어머니와 같았던 YWCA 이애신 총무님의 여러 가지 배려는 우리들에게 크게 힘을 실어주던 원군이였다. 초창기 발기인대회와 창립총회 무렵은 대체로 이기홍 변호사와 그 사무소 사무장인 위인백 박사와 필자가 중심이 되어 일을 처리했으나 그 어렵던 시절에 동료 고등학교 교사들이던 정규철 선생, 임추섭 선생, 송문재 선생 등 교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는 가장 큰 힘이 되어주었음을 잊을 수 없다.

1973년 『함성』지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죄목으로 옥고를 치

루고 겨우 다시 복직한 고등학교 교사이던 필자는 학생운동이외의 새로운 활동의 장을 찾은 기분으로 혼신의 정열을 바쳐 앰네스티 운동에 적극적이었다. 11월 21일 앰네스티 광주지부 발기인대회에서 준비위원장으로 이기홍 변호사를 추대하고 총무에는 박석무 교사, 준비위원으로 강치원 목사, 고민영 목사, 김성용 신부, 문정식 목사, 방철호 목사, 이성학 장로, 이애신 총무, 홍남순 변호사, 은명기 목사, 정규완 신부, 조비오 신부, 조아라 장로, 윤철하 변호사, 이형민 YWCA 간사, 박가용 선생, 김년 선생, 이일행 선생, 정태성 선생, 장기언 선생, 윤영규 선생, 장두석 선생이 선임되었다.

1977년 12월 10일 회원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가톨릭센터 507호실에서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 총회는 유연창 목사의 지도로 시작되었고 정규완 신부의 세계인권선언문 낭독과 나길모 한국위원회 이사장의 축사가 있는 뒤 광주지부 규약을 통과하고 임원선출이 있었다.

지부장 이기홍 변호사, 총무담당 운영위원 박석무 교사, 재무담당 조아라 장로, 조비오 신부, 교육담당 유연창 목사, 문병란 시인, 섭외담당 이성학 장로, 김성용 신부, 이애신 YWCA 총무, 고민영 목사, 정규완 신부, 감사 이연생 YWCA 총무, 이형민 YWCA 간사, 고문 홍남순 변호사, 은명기 목사, 나상택 신부, 강치원 목사, 윤철하 변호사로 임원을 선출했다. 유신헌법으로 자유와 인권이 말상당하고 혹독한 독재에 신음하던 시절, 광주지역을 대표해서 민주주의 회복에 앞장서서 투쟁하던 광주지역의 중심인물들이 모두 참가한 광주의 대



광주앰네스티운동 30년사

표적인 투쟁단체로서 면모를 보여주는 데 유감이 없는 조직의 구성원이었다.

교사이던 필자는 언어 그대로의 제반 일을 관장하는 총무담당 운영위원으로서 일하며, 우리의 활동이 전혀 보도되지 않기 때문에 기록으로라도 남기기 위해 ‘회보(回報)’라는 이름의 뉴스레터를 간행하는 일도 열심히 하였다. 출판으로 기름종이에 곁어서 등사판으로 회보를 만들던 기억은 눈물을 머금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다행히 그때의 회보 전체가 보존되었으며 그 자료를 중심으로 앰네스티 광주지부 창립 이전인 1974년 11월부터 한국위원회 회원이던 이기홍 변호사가 앰네스티 활동을 시작한 때로부터 30주년을 맞는 2005년 1월 마침내 『인권과 민주화의 산실 - 광주앰네스티 30년사』라는 자료집이 초창기 회원이던 위인백 박사의 노력으로 발간되었다(2005년 1월 12일자, 국제앰네스티 광주지회 간행, 새날출판사).

이런 자료집이 정리되어 출간되었으니 광주엠네스티 운동사는 다른 어떤 운동과 다르게 기록을 통해 그 활동사항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었다. 창립총회의 날인 1977년 12월 10일 당일의 사업이 기록되어있는데, ① 그리스의 양심수인 Kavabatsoukis(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지원, ② 임영천(조선대 교수)·양성우(시인)의 가족돕기, ③ 지부 월회보 간행, ④ 월례회 개최(매월 마지막 월요일)라는 4개 사업을 확정하고 바로 실행에 옮겼다. 1977년 12월 30일 제1차 운영위원회가 열려 78년도 예산안을 통과하고 1978년 매월 마지막 월요일 오후 6시에 광주YWCA 2층 클럽실에서 월례회를 갖기로 하였다. 사무소는 광주YWCA에 두고 연락소는 이기홍 변호사 사무실로 정했다. 긴급조치로 구속된 조선대 임영천 교수와 광주중앙여교 교사이던 양성우 시인의 가족돕기를 시작으로 활동하였다.

마침내 1978년 1월 24일자로 국제엠네스티 한국위원회 광주지부 『회보』가 “良心囚人’을 돕자”라는 이기홍 지부장의 권두언을 싣고 간행되었다. 회보 제1호에 기재된 내용은 그때 우리가 실천했던 활동이 상세히 기록되었다.

1978년 1월 30일 월례회(광주YWCA 클럽실), 회원 19명 참석, 지부장 이기홍외 18명. 조아라 장로의 기도로 시작. 지난 연말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양심수인 임영천 교수와 양성우 시인 가족 돕기 모금으로 현금 22,000원을 수합, 조아라 5,000, 이기홍 4,000, 문병란 2,000, 유연창 2,000, 이애신 2,000, 박석무 2,000, 이영생 1,000, 위인백

1,000, 송주정 기자 1,000, 정규철 500, 강치원 500, 윤재현 1,000. 모  
 금된 22,000원을 2월 10일에 임 교수와 양 시인 가족에게 11,000씩  
 지원하였음.

위와 같은 기록은 회원들이 각자 형편대로 출연하여 양심수 가족  
 돕기에 앞장섰음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양심수들이야 감옥에  
 갇혀 있어 가족들 이외에는 일체 면회도 되지 않아 그들을 돕는 것  
 을 그들의 가족을 돕는 일로 대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때의 형  
 편이었다. 광주라는 특별한 도시였기 때문에 40여 명의 회원이 모여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월례회를 통해 시국담을 나누고 모금까지 벌  
 여 양심수를 돕는 일을 할 수 있었지, 그런 일이 여타의 지역에서 쉽  
 게 행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긴조시대’라는 그 엄혹하던 시절,  
 그렇게 소극적인 반유신 투쟁으로 시작된 앰네스티 운동은 광주지역  
 의 특수성에 맞게 과감하게 적극적인 투쟁 대열로 진전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갔다.

본디 앰네스티 운동은 인권운동으로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기 위  
 해서는 네 가지 기본적인 활동원칙이 있었다. ① 정치적 중립의 원  
 칙 ② 공정무사의 원칙 ③ 국제적 품앗이 원칙 ④ 자국문제 불간섭  
 원칙을 정해 놓고, 기본주장으로 3개항이 있었다. ① 모든 양심범을  
 즉각 아무 조건 없이 석방하라, ② 모든 정치범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하라. ③ 사형제도 및 고문, 학대 행위 등을 일절 금지하라. 이  
 러한 제약과 원칙이 있었지만 반독재·반유신의 분위기가 다른 어떤

지역보다 고양되어 있던 광주에서는 단체의 이름이야 국제엠네스티 광주지부라고 되어 있지만 회원의 대부분이 인권운동에 앞장서던 회원이 많아 자국 문제 불간섭의 원칙을 충실히 지킬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그런 원칙을 지킨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국내의 양심수를 직접 도와주지 않고 다른 어떤 외국의 양심수를 도울 수 있었겠는가.

양심수 가족을 돕고, 양심수들의 재판법정에서 방청하면서 그들을 격려하는 일을 계속하고 회보를 통해 확보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첫 호 『회보』에 나온 기사를 보자.

78.3.5 양심수로 광주교법에서 재판이 계류중인 강인한(재우) 목사(전북 김제 백구면 난산교회)가 교도관으로부터 폭행당한 사건 발생.

78.3.8 지부장 이기홍 변호사가 강인한 목사를 면회하고 진상을 확인.

강인한 목사 폭행사건 진상보고를 본부에 발송하고 그 시정책을 촉구

함. 78.3.8 장흥지원에서 긴급조치 위반으로 6년(자정6년) 징역형을 선고 받은 고영근 목사가 항소로 광주교도소로 이감하였음(수번 994번).

3월 11일 강인한 목사가 전주지법에서 긴급조치 및 반공법위반으로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7년을 병과하여 선고받고 광주교법에 항소 중

폭행당한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으나 광주교법에서는 항소가 기각됨.

3월 14일 상고. 이날 법정에는 서울의 문익환 목사와 그 사모님, 기장

총회 총무 박재봉 목사 등이 참석하였고 본 지부 엠네스티 다수 회원

이 참석하여 강 목사를 구타한 사실에 대하여 언성 높기 질책하며 혼

을 내준 사실까지 발생.

안철·이철우 긴급조치위반 사건은 78.2.28 대법에 상고가 기각되어 1년 징역형이 확정되어 78.4.26 석방될 예정이며, 배호경 긴급조치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일이 78.3.28로 정해짐.

회보 제2호는 78년 3월 24일 간행되었는데 머리글은 시인 문병란의 ‘인간과 양심’이라는 제목으로 실렸다(이 글은 필자의 글이었으나 문 시인의 글로 게재됨).

### 인간과 양심

“3군의 위력이야 한 칼에 짓눌러 버릴 수 있을지라도 필부의 의지와 황제의 힘으로도 뺏을 수 없다는 것이 고전에 있는 말입니다. 물론 이룰 때 필부의 의지란 정정당당하고 정의에 거리낌 없어야 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한 인간의 양심과 통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양심이란 그 인간만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이지 어느 누구도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절대 불가양, 불가침의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인간의 양심이 사회나 기타 조직체 및 어떤 타인에 의하여 침범을 당하고 짓눌리고 있다할 때 한 개인이 당하는 고통은 너무도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바른 사회, 건전한 국가란 이러한 인간의 양심을 보장해주고 한 개인으로 하여금 그것을 고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나 국가를 말하는데 오늘날 세계 도처에는 그러한 나라나 사회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우리 인류의 고민입니다. 우리

나라도 그에 벗어나지 않는 곳이라 할 때 우리는 더욱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세계도처에 양심을 지키다 수인이 된 사람이 껍이나 많듯이 우리나라에도 현재 양심수인이 옥중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새삼스럽게 양심을 고수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머리 숙여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거대한 사회 속에 정치관계나 모든 마찰로 인해 양심수인이 없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나 인간의 본질적 가치가 양심을 지키는 일과 연관 지어질 때 우리 주변에도 하루속히 양심을 지키면서도 어느 곳에서도 자유롭게 확보할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양심, 이 고귀함을 지키기가 매우 힘겨운 일이나 우리는 모든 양심을 지키는 일에 더더욱 힘찬 노력을 경주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다짐해 봅니다.

“양심지키기 운동”이라도 전개하려는 생각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써본 글이다. 고교 교사라는 낮은 신분인 필자는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이름을 숨기고 교수이자 시인이던 문병란 선생의 이름으로 글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

제2호 『회보』에는 좋은 기사들이 많았다.

78.4.14. 춘계 인권강연회 개최, 광주 YWCA 소심당에서 400여 명의 청중이 운집한 가운데 이문영(전 고려대 교수) 선생의 「인권과 제도」라는 내용과 송건호(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선생의 「인권과 언론」이



『회보』를 통해 긴급조치라는 악법으로 탄압받는 민주운동가들의 소식을 전하고 대중집회를 통해 반유신 정서를 고양시키는 일은 당시로서는 독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었다. 더구나 양심수 재판에 방청석에 앉아 수인들을 격려하고 그들과 그들의 가족을 도와주는 일도 매우 가치 있는 일이었다. 『회보』 제4호의 머리말은 이기홍 지부장의 글로 “고문제도의 조속한 폐지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그 당시 독재집단의 양심수들에게 가한 고문을 폭로한 내용이어서 지금 읽어도 가슴이 아파지는 기사였다.

現下 우리 주변에는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6월 하순경 전남대 및 조선대 학생들의 시국에 관한 의사표시 및 시위와 관계되어 연행조사를 받았던 학생들이 구속 송치되어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바 이들을 변호인으로서 접견하였더니 전대 영문과 4년생인 박현옥이라는 여학생은 수사 중 머리채를 잡히고 발로 채이며 뺨을 맞는 등의 폭행을 당하였고 구속 중인 전대생 7명 전원이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조선대 법과 2년 김용출군, 공대 1년 박형중군, 금속학과 1년 양희승군 등도 한결같이 뺨을 맞는 등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으니 범치국가인데다 20세기 후반의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일이 자행될 수 있다니 통탄을 금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을 폭로하여 독재자들의 만행을 세상에 알려지게 하였다.

이어지는 글에서 “지난 6월27일 전남대 교수들의 ‘우리의 교육지

표' 발표와 함께 한 분의 교수가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고 10명의 교수가 사표를 쓰고 교단을 떠나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전남대생들의 시위와 관련 8명의 학생들이 구속 기소되어 있고, 광주 YWCA 간사 김정천과 인쇄업자 정호철 씨가 구속기소되어 이 지방에는 며칠 사이에 많은 양심수들이 또다시 우리 앰네스티 회원들의 손길을 기다리게 되었다"라고 말하여 긴급조치에 금지되어 있는 긴급조치위반에 대한 구속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해내고 있었다. 제4호는 1978.7.31.자로 간행된 『회보』였다.

『회보』 제3호의 기사에서는 이미 6·27 전남대 교수들의 “우리의 교육지표” 사건에 대한 기사를 내보냈고, 같은 6·28일에는 본 지부 산하에 ‘6.27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이성학 장로와 박석무 총무 등이 실무를 맡아 구속된 교수와 학생 등의 석방에 대하여 비상한 관심을 보이며 백방으로 노력을 기울인다는 기사도 있었다.

1978년 8월 28일자로 발행한 『회보』 제5호에는 “양심수인의 재판을 구경하고”라는 머리글은 이성학 장로 이름의 글이지만 필자의 글이었다. 법관의 양심과 법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정보당국의 지시에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재판의 불공정성을 가차없이 비난한 내용이었다. 1978년 9월 28일자로 간행한 회보 제6호에는 1심 재판정의 송기숙 교수의 최후진술 내용을 녹취하여 풀어서 쓴 내용을 게재하였다. ‘국민교육헌장’이라는 치욕적인 독재교육에서 벗어나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교육지표로 교육시켜야 한다는 ‘교육지표’ 사건에 대하여 발표 동기부터 그 내용이 담고 있는 뜻을 소상히 밝혀 법에 위반한 사

항이 아님을 조리 있게 밝힌 명연설의 최후의 진술 내용을 장문으로 실었다. 송 교수의 최후진술 내용이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보도한 사실은 작은 일이 아니었다.

제6호 『회보』의 소식란에는 당시 지부의 외부활동이 자세히 보도되었다. 1978년 10월 28일에는 추계 인권강연회가 열렸다. 연사에 시인 고은(문학과 인권), 조비오 신부(근로자와 인권)의 두 강연이 열렸으며 그 강연 요지를 제7호 회보에 실렸다. 11월 10일에는 회보 7호가 간행되었다. “良心囚人을 생각하며”라는 머리글은 박석무의 글이었다. 주목되는 기사가 많았다. 197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30주년을 맞아 본 지부는 광주의 인권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YWCA 소심당에서 이우정(전 한신대) 교수와 인명진 목사를 초청하여 양심범을 위한 인권연합예배를 가진 바 있다. 이 예배에는 400여 청중이 운집하여 인권 탄압 사례의 폭로와 현장보고 등의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했다.

12월 11일에는 앰네스티 제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전년의 임원을 그대로 연임케 하였다. 12월 31일에는 광주지방 민주가족 송년회를 YWCA 소심당에서 개최한바 우리 회원들이 다수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기도 했다. 1979년 1월 15일자로 『회보』 제8호가 간행되었다. “새해에는 인권회복을……”이라는 조비오 신부의 권두언이 실렸다. 중요한 기사 중 하나는 『회보』 제9호에 실렸는데 1979년 2월 5일 양심수인을 위한 문학의 밤이 개최되었다. 우리 지부의 주선으로 광주 NCC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주최로 양심수인 문익환 시인(목

사), 송기숙 소설가, 김지하 시인, 양성우 시인 등 간혀 있는 4인을 위한 행사가 광주 YWCA 소심당에서 400여 청중이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다. 광주지부 다수의 회원 및 광주의 문인, 서울에서 고은, 염무웅, 조태일, 박태순 등 많은 문인들이 대거 참석한 행사였다. 네분의 대형 사진을 단상의 벽에 내걸고 뜨거운 열기 속에서 그들의 석방을 외치고 고향소리가 천지를 흔들게 하는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유신의 마지막 해인 1979년 한 해의 인권운동은 이 대회로부터 우렁찬 서막을 올렸다. 전국 어디에서도 그들 수인을 위한 문학행사가 불가능하던 때, 오직 광주에서 앰네스티 광주지부의 활약으로 개최된 행사는 문학의 밤 행사가 이곳저곳에서 열리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주기도 했다.

『회보』 제9호가 1979년 3월 20일자로 간행되었다. 이 『회보』에는 전남대 ‘교육지표’ 사건에 연루되어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피고인으로 재판받던 연세대 성내운 교수의 최후의 진술 내용이 대부분 게재되어 있다. 방청석의 모두를 올린 그 분의 명 진술은 읽은 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었다. 1979년 6월 25일에는 『회보』 제10호가 발행되었다. “6·21 양심수의 이감사태에 대하여”라는 권두언은 이성학 장로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필자의 글이었다. 7월 30일 자의 제11호 『회보』에는 참으로 많은 기사가 실렸다. 양심수 돕기 모금에 참여한 회원 17명의 이름도 기재되어 있었다. 문병란, 은명기, 조병환, 이기홍, 정규완, 이성학, 이영생, 오정우, 김경천, 방철호, 배종렬, 안식, 정규철, 위인백, 조아라, 박가용, 박석무 등이 참여했다.

7월 4일에는 본 지부 운영위원인 김성용 신부, 조비오 신부, 정규완 신부 등이 주관하여 광주북동천주교회에서 ‘정의와 평화를 위한 기도회’가 개최되어 홍남순 변호사를 비롯하여 우리 회원 다수가 참석하였다. 1979년 7월 7일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영희(전 한양대 교수), 손주황(국회의원), 성내운(연세대 교수)에게 각 1만 원의 영치금을 넣어주었다. 김병곤(대학생), 황현승(대학생), 백계문(학생), 나경일(학생) 등에게 각각 5,000원의 영치금을 넣어주었다. 1979년 7월 9일 박석무 총무 목포에 출장, 김기열 변호사 등과 만나 목포지부 앰네스티 활동에 대한 토의를 하였다.

1979년 7월 13일 6·27 교육지표사건 1주년 기념행사 개최. 광주 NCC와 공동으로 광주 YMCA 박제실에서 거행하였다. 1년 전 6·27 민주교육선언의 뜻을 기리고 이문영(고려대) 교수의 『민주교육의 이념』이라는 주제의 대중 강연이 있었다. 우리 회원 및 수백 명의 청중이 모였다. 7월 19일 마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신경식(학생) 군 등의 단식투쟁 소식을 듣고 본 지부 강신석 목사, 고민영 목사, 유연창 목사 등이 마산교도소로 직접 출장 가 시정책을 요구했다. 7월 23일 본 지부 홍남순·이기홍 변호사, 박석무 총무, 최운용 회원 등이 순천 법원으로 가서 정기영(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 공판에 참여, 두 변호사의 변론을 들었다. 이때 국회의원 조연하 의원의 점심 대접을 받았다. 7월 23일 월례회 및 7월 17일 석방자 환영회를 개최해, 송기숙, 양성우, 노준현 학생 등이 참석했다. 지부 회원 다수가 참석하고 서울에서 온 평론가 염무웅, 시인 조태일, 소설가 윤홍길 등이 참석하

고 지방의 문병란 시인, 한승원 소설가, 김준태 시인 등이 참석했다. 환영받은 양심수는 송기숙, 양성우, 윤담용, 정용화, 노준현, 김경택, 백삼철 학생과 신용길 씨 등이었다. 1979년 7월 30일 자로 『회보』 11호 간행, “민주발전은 전진적으로”라는 송기숙 교수의 권두언이 실렸다.

1979년 9월 1일 제12호 『회보』에는 매우 중대한 기사가 실렸다. 기사 내용 그대로 옮긴다. 1면의 머리글은 “추모사 - 겨레 앞에 殉國한 偉대한 民族의 딸 故 金景淑양의 靈前에 -”였다.

1979.8.13. 광복절 인권세계보고 및 고 김경숙양 추도회 개최. 본 지부는 광주 YMCA 무진관에서 광복절 기념 인권강연회를 신민당 김영삼 총재를 연사로 초청 개최코자 했으나 YH사건에 의해 김 총재의 광주 방문이 어렵게 되자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광주 NCC와 공동으로 사례보고 및 이 고장 출신 YH사건 중 사망한 김경숙양의 추도회를 가졌다. 본 지부의 다수 회원과 약 1천 5백여 명의 청중이 모인 가운데 김성용 신부의 안동교구 오원춘 가톨릭 농민회원 사건에 관한 진상보고와 광주 출신 이필선 국회의원의 YH여공 신민당사 농성 강제해산에 관한 진상보고, 농민회 강진군 김규식씨 구속사건에 관한 누이동생의 호소문 및 진상보고가 1부 순서로 하여 마치고, 고 김경숙양 추도회를 2부 순서로 하였다. 추도회에서는 조비오 신부의 비통한 기도와 유연창 목사의 애끓는 추모사가 청중의 가슴을 울리게 하였다. 김복영 의원도 김경숙양의 죽음을 애통해 하는 인사말로 식을 마쳤다(익일

CBS 광주방송국과 중앙일보에 보도).

추모사-겨레 앞에 殉國한 偉大한 民族의 딸 故 金景淑양의 靈前에-

북악산도 한강물도 슬피 울고

무등산 극락강도 애처로이 울어에는

이 나라 光復의 달 八月의 하늘 아래

겨레의 딸 김경숙양이 꽃다운 스물한 살 처녀의 몸으로

조국의 民主回復 투쟁에 희생의 제물로

이 나라의 근로민중 앞에서 십자가 지고 그리스도 제자의 길을 갔습  
니다.

1979년 8월 11일 2시 30분경 마포 신민당사 YH여공 노동투쟁 현장  
에서

우리 모두 부끄럽다고 고개 숙여 한없이 참회의 눈물을 흐르도록 합  
시다.

눈물이 말라 이 값진 죽음에 새 생명으로 부활하고 새 힘이 솟아날  
때까지 재생의 용기를 주는 기막힌 눈물로 哀哭哀哭 울어봅시다.

무등산아 극락강아 말해다오

북악산과 한강수야 말해다오

우리 무등의 딸 경숙이를 누가 죽였느냐고?

自害라고 했다가는 投身이라고 바꿔 말하는 신문과 라디오 이야기는 믿을 수가 없도다.

경숙이 영혼이여, 그대는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죽었을 뿐입니다. 자해여도 좋고 투신이어도 좋고 추락사여도 他殺이어도 좋습니다. 그대가 빼앗긴 生存權을 위해 쫓겨난 생활터를 되찾기 위한 人間の 基本的 권리인 일할 자리를 얻겠다는 勞動투쟁에서 죽어간 이상, 그대의 죽음은 조국과 거래를 위한 순국이요 民主主義를 위한 民主祭壇에 몸과 피로써 바친 거룩한 죽음입니다.

아버지 김동원씨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최연자 부인 슬하에서 자라 1971년 광주남국민학교를 졸업한 김경숙양은 14살 때부터 무허가 장갑공장에서 봉제일을 시작하여 72년 5월 서울 양동에 있는 제품공장으로 자리를 옮겨 한풍석유, 태신산업, 이천물산을 거쳐 76년 8월 30일 일 잘하는 성실한 여공이라는 소문으로 YH무역회사 김모 과장에 스카웃되어 일자리를 옮긴 이래로 동료들 사이에서는 ‘책임감과 의지가 강한 언니’로써 회사내에서는 유능하기로 이름난 여직공이었습니다.

회사 노조의 상임집행위원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 하였고, 지난 79년 8월 9일부터 시작한 YH여공 신민당사 농성투쟁에서는 決議文을 낭독하는 등 주동역할을 했습니다.

딸의 죽음도 모르고 리어카에 퇴밥을 신고 평상시처럼 행상을 하던 어머니가 뒤늦게 딸의 죽음을 들었을 때의 슬픈 사연을 우리가 어찌 상상이나 할 수 있으며 3개월마다 5~6만원을 보내주는 누나의 도움으

로 전남기계공고 3학년에 다니는 동생 준곤이가 수업 중에 누나의 비명에 간 죽음을 들었을 때의 청천벽력 같은 심정을 우리가 어찌 이해할 수나 있겠습니까.

연 5만원 월세방에서 살아가던 가난하기 짝이 없는 가정에서 가장 노릇을 하던 믿음직스럽던 딸의 죽음을 무엇으로 보상해주고 것처럼 커다란 자리를 누가 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단결하면 꼭 이길 겁니다.”라던 싸움이 이기지도 못한 채 “몇 년 전 장용호 회장이 미국으로 돈을 외화 도피시켜서 저희 근로자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고, 돈 많은 회장이나 사장들은 자기만 잘 살겠다고 저희 근로자들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라고 어머니께 보낸 편지는 오늘날 우리 경제 현실의 난맥상이 어디에 그 원인이 있나를 보여주지만 그러면서도 “여름의 번덕이 심한 날씨에 고생하시는 어머니의 그 모습은 멀리 떨어졌다고 잊지는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는 어린 딸의 효성어린 마음씨를 간직하고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우리 문제는 곧 해결됩니다.” 라고 하였고, “힘약한 근로자들은 힘을 합하여 단결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라고 승리의 그날과 승리할 수 있는 방법까지를 예견하는 투사로서의 지략을 지녔던 어린 경숙양 !

사랑스러운 동생에게 보낸 79년 7월 9일자, 최근의 8월 3일자 두 편지를 읽어가다 보면 “누나는 바쁜 생활 속에서도 나의 취미를 살리고자 회사의 친구에게 기타를 배우고 있단다. 건전한 노래나 찬송가를 부르며...”라고 시속의 여성다움을 지녔으면서 “준곤아 이왕에 세상에

태어났으니 남에게 꼭 필요로 하는 인간의 구실을 해야겠지.”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나와 너 서로 이해하며, 사랑하며 살도록 하자 응응. 이 누나는 어떠한 일에도 참고 이기며 살려고 힘껏 노력하고 있는 거야. 여러 사람들을 위한 길이라면 나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다수를 위하여 살고 싶어. 꼭 그렇게 살도록 할꺼야~.” 라고 끝내는 자기의 각오를 토로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위한 길이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고, 다수를 위해서만 살겠다던 경숙이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수천 개의 밀을 되살게 하려고 殺身成仁의 숭고한 정신으로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말았습니다.

동생에게 교회에 나가고 신학을 공부하고 성서를 읽으라며 “그러한 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린도후서 5:17) 라는 성경 말씀을 통해 수준 높은 기독교 철학으로 죽음 후에 올 새 시대의 도래를 우리 민족 앞에 엄숙히 선언해 놓고 이제 몸만 갓을 뿐 성령으로 살아있게 되었으니 그대의 죽음은 육신의 죽음일 뿐입니다.

이 민족 5,000년 역사에서도 유일한 죽음으로 노동투쟁의 현장에서 역사적 죽음을 영원한 삶으로 새롭게 부활할 위대한 순국을 하였습니다.

유관순 언니보다도, 전태일, 김상진 오빠 열사보다도 생생한 역사의 현장에서, 이 나라 5천만 민족에게 생존권을 위한 투쟁의 천금 같은 교훈을 남긴 채 8백50만 이 나라 근로대중의 모든 목숨을 대신한 희생의 목숨으로, 온 겨레 삶의 십자가를 혼자서 짊어지고 연약한 우리

의 딸 경숙양은 우리에게 새로운 투쟁의 힘을 불러 일으켜주는 듯 죽지 않은 채 눈만 감았습니다.

무등아 무등아

광주의 딸 경숙이가 죽지 않은 부활의 몸으로 승천한 생명으로 우리를 지켜본다. 민중들아, 백성들아, 너희는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고이 잠드소서 고이 잠드소서

민족이 있고 겨레가 남아 있는 한 근로자와 노동투쟁을 위해 그가 남긴 셋별같은 이정표는 영원히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니 그대의 영혼이여 편히 쉬소서

무등이여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딸이 편히 쉬게 해 주소서

남아 있는 우리 민중에게 힘을 주게 해 주소서

순국열사 노동투쟁 선구자

김경숙 만세 만만세

1979. 8.13.

광주엠네스티, 광주교회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sup>1)</sup>

---

1) 이 글은 1979년 8월 13일 밤 광주 YMCA 무진관에서 1,500여 명의 청중이 모인 가운데 고 김경숙 양의 추도회에서 낭독한 추도사이다(『광주엠네스티운동 30년사』, 114~119쪽).



고 김경숙 양

1979년 8월 11일 새벽에 타살당한 노동자 김경숙은 노동투쟁 현장에서 굶허지 않고 투쟁하다 국가권력에 의해 목숨을 잃고 말았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광주 학동에 살던 김경숙의 본가를 박석무 총무가 직접 찾아가 집으로 보낸 편지를 확인해서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고 앨범에서 독사진 한 장까지 얻어서 가지고 왔다. 그 직후 앰네스티 간부회의를 열어 기독교와 천주교 쪽의 협조를 받아 추모집회를 갖기로 결정하고 전격적으로 YMCA에서 장소를 협조받고 추모사를 직접 박석무가 썼다. 김경숙 순국 5일 후인 8월 13일에 추모회가 열렸다. 교사 신분이던 박석무는 그 글을 가장 약하고 힘없는 내용으로 썼지만 그 당시의 정치적 분위기로는 더 강한 내용을 쓸 수가 없었다. 마침 앰네스티 간부이던 유연창 목사가 선뜻 낭독하겠다고 허락해 주어 성경의 이야기까지 가미하여 글의 내용을 채우고 유 목사께서 낭독하였다. 정말 어렵던 시절의 이야기이다.

그러나 김경숙 양의 순국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은 한 단계 발전하였고, 오래지 않아 10·26이라는 유신체제 붕괴의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기에 이른다. 긴급조치를 피해가고 과격한 내용을 줄이려고 힘없는 글을 쓰던 그 당시의 감회가 지금도 필자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노동운동의 발전 없이 민주화의 길은 더욱 어렵다. 그런 역사적 의의를 이해하던 우리들은 김경숙 양의 죽음의 의미를 부각시켜 노동투쟁의 활성화를 위한 뜻에서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그러한 추도회를 개최하였다. 그때 1,500여 청중이 운집했던 것으로 보면 1979년 후반기에 들어오면 정권의 붕괴가 오래 남지 않았음을 실감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투쟁이 더욱 활발히 전개되고 있었다. 그런 정세에 힘입어 1979년 후반기의 앰네스티 운동도 매우 활발하게 진행하기에 이른다.

1970년대의 광주앰네스티 『회보』는 김경숙 양의 추모문이 실린 9월 1일자 간행 제12호로 마감한다. 바로 그 다음 달인 10월 26일 박정희 피살로 유신체제는 붕괴되었으나 바로 계엄령이 선포되어 모든 집회가 금지되어 앰네스티 집회도 열릴 수가 없었다. 계엄령이 해제되지 않았고, 더구나 전국 계엄령으로 확대 조치한 1980년 5월 17일 자정 이후나 5월 18일 부터는 광주항쟁의 발발로 앰네스티 활동은 완전히 중단되고 말았다. 5·18광주항쟁 이후 광주앰네스티 간부들은 전원 구속을 면하지 못하고 처절한 아픔만 겪어야 했다.

1977년 12월 10일 창립된 광주앰네스티 지부는 그날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79년 10월 26일까지 2년여 가까이 광주의 사회인들의 민주

화운동을 주도하였다. 대학가에서는 대학생들이 가열한 투쟁을 계속하였고 밖에서는 시민들이 앰네스티운동을 가장한 단체에서 대단한 운동을 전개했다.

1978년 1월 14일자로 간행된 『회보』 1호에서 1979년 9월 1일자 회보 제12호에 이르는 회보 12장은 1970년대 후반 광주지역의 시민들의 반유신운동의 생생한 기록이 담긴 대단한 역사기록물이다. 대학가의 구속 학생 소식이나 재판 소식은 학생운동의 현황을 전해주고, 인권 강연을 통해 시민들의 의식화 운동에 앞장섰던 많은 내용이 실려 있다.

『광주앰네스티운동 30년사』의 내용으로 보면 10·26 박정희 사망 이후에도 1980년 2월 25일 이기홍, 박석무, 문병란, 이영생, 이성학, 송주정, 조비오, 강승언, 임추섭, 조아라, 송문재, 김호준, 정규철, 이애신, 김정천, 안식, 이형민, 고민영, 박가용, 박만철, 김영진, 박대선, 정규완, 임종필, 김영주, 김석중, 유연창, 김준태, 위인백 등 30여 회원이 모여 1979년의 정기총회를 그때에야 개최하였다고 적혀 있다. 그날 총회에서 지부장에 이성학 장로, 총무에 다시 박석무가 선출된 기록이 있다. 1980년 2월 25일부터 1980년 5·18 이전까지 민주화운동의 기록도 “1980년 자료”라는 곳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광주앰네스티운동 30년사』의 기록에 5·18민주항쟁으로 앰네스티 회원으로 구속자 명단이 있다. 김성용, 명노근, 박석무, 송기숙, 송희성, 안철, 위인백, 윤광장, 윤영규, 이기홍, 이애신, 이영생, 장기연, 장두석, 정규철, 정태성, 조비오, 조아라, 최운용, 호남순(가나다 순).

## 6. 1981년 이후 앰네스티 운동(『광주앰네스티운동 30년사』에서 인용)

『광주앰네스티운동 30년사』에 의하면 1981년 4월 16일 오후 8시 이성학 장로(지부장)의 주도식을 위해 앰네스티 회원들이 모이기 시작하여 앰네스티 재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내용이 있다. 필자는 투옥 중이어서 그때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1982년 9월 14일 앰네스티 광주지부 재건 총회가 열렸다는 기록이 있다. 이후의 앰네스티 운동 역사는 뒤에 새로운 필자에 의하여 정리되기를 바란다. 1982년 이후 광주앰네스티 운동은 위인백 박사의 역할이 매우 컸다. 위 박사에 의해 그때의 활동사항이 정리되기를 바란다.

다만 재건된 광주앰네스티지부는 5.18 이후의 광주민주화운동에 구체적으로 관여하면서 본격적인 투쟁단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1985년 5월 10일 ‘5월 광주민중혁명 희생자 위령탑 건립과 기념사업 범국민운동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홍남순 고문께서 추진위 위원장으로 추대되었다. 그때 그 단체의 출범을 알리는 선언문이 발표되었는데 1980년 앰네스티운동의 투쟁적인 정신을 알아보기 위해 그 선언문을 기록으로 남긴다. 그 선언문은 필자의 글이다.

“광주 5월 민중혁명 희생자 위령탑 건립 및 기념사업 범국민운동 추진위원회 창립 선언문”

인류역사는 폭압과 강제의 무도한 지배층에 항거하여 민중이 역사의 주체이기 위한 기나긴 싸움의 장정이었다.

80년 광주 5월 민주혁명은 동학혁명, 4·19혁명과 함께 부정과 부패, 탄압에의 위대한 거부를 통하여 우리 민족사에 새로운 장을 열어젖힌 혁명적 민중항쟁이었다.

18년 군부독재는 10.26으로 완전히 종식을 고하고 민중의 염원인 자유와 해방, 평화와 통일의 희망찬 새 역사가 이 땅에 도래해야만 했다. 그러나 권력을 탐내는 소수 군부세력은 그렇게 목 타는 온 국민들의 바람을 무참히 짓밟고 또 다른 독재의 아성을 쌓기에 급급하였다.

군부독재의 마감을 알아챈 광주의 민중은 총칼 앞에 죽음의 투쟁을 계속하다가 끝내는 무기를 의로운 민중의 손으로 빼앗아 정당방위의 지구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죽음과 시체더미에서 피어난 자유와 해방의 꽃, 민중의 찬란한 승리가 눈앞에 다가왔건만 군부독재 세력은 외세의 지원을 얻어 외적을 쳐부수고 국토를 방위하여 국민의 생명을 지킬 군대로 하여금 오히려 국민을 향하여 학살만행을 자행토록 하였다.

참담한 좌절의 결과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바뀐 광주는 죽음의 행렬에서 투옥의 행렬로, 투옥의 행렬에서 고문과 공포의 침묵만을 강요당한 채 숨소리를 죽인지 벌써 5년이다.

그러나 생생한 민중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어떻게 묻힐 수 있겠는가. 그 날 총탄에 쓰러지며 외치던 반독재의 함성, 울부짖던 민족통일애의 염원은 마침내 광주에서 온 나라로 퍼지고 한반도에서 전 인류의 간절

한 아우성으로 세계 전역에 메아리치기에 이르렀다.

더구나 집권층의 오도에 의하여 침해한 대립관계로 보지 못하던 민족적 모순이 커다란 쟁점으로 생생하게 드러나고 통렬한 분단의 아픔을 절실히 인식시켜 통일만이 삶의 정당한 길임을 알아차리고 그러한 투쟁정신으로 무장된 민중 역량이 독재의 사슬에서 벗어나 민주화의 길을 갈 수 있다는 명확한 논리를 온 국민의 가슴 속에 번지게 하였던 점으로 본다면 광주 5월 항쟁이야말로 민족사를 밝혀 줄 혁명적 민중, 민주, 민족운동이었다.

그리하여 그날의 역사적 의의와 업적을 잊지 않고 계승하기 위하여 전국을 망라하고 해외 동포와 우방국민까지 포함하여 민족적 대사업을 이룩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광주 5월 민중혁명의 희생자를 위로할 위령탑 건립과 추진위원회의 창립을 엄숙히 선언한다.

다수 민중이 역사의 주체임을 믿는 모든 국민의 정성어린 헌금과 해외동포들의 지원 및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뜨거운 성금을 거두어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아 ! 항쟁 5주년 그날이 다가온다. 그 분노, 그 함성, 그 싸움, 그 죽음의 금남로가 우리를 악몽에서 깨우쳐주고 공포에서 용기 있는 행동으로 나아가게 해 줄 것이다. 무차별 난사하던 총탄 앞에 맨몸으로 달려들던 그날의 투쟁정신만이 우리의 사업을 성취시킬 것이고 위령탑이 세워지게 할 것임을 확신한다. 살아남은 자들의 부끄러움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그날에 못다 푼 역사적 한과 분노의 가슴을 식히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손에 손을 맞잡고, 머리에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하여 성취의 그날까지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전진하겠다.<sup>2)</sup>

1960년 4월, 4·19혁명 때부터 가두시위에 참여했던 필자는 1960년대의 한일회담반대, 1970년대의 군부독재 타도 투쟁, 1980년대의 5·18광주민주화운동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운동에 직접 참여했다. 대학원을 마친 사회인으로서 참여한 1970년대 말 광주의 앰네스티운동은 1980년의 5월을 준비했던 민주화운동이었다.

5·18 이후 상세한 내용은 다른 필자에게 미루고 1985년의 선언문인 광주항쟁의 정신을 알리는 글로 『녹두』와 『앰네스티운동』의 글을 마친다. ~~끝~~

---

2) 『광주앰네스티운동 30년사』, 141~144쪽. 이 선언 이후 국내는 물론 세계적(해외동포)으로 모금운동이 전개되었다.